이라논의 탐구

The Quest of Iranon

H.P. 러브크래프트 (1890–1937)

1935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5-24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H.P. Lovecraft, "The Quest of Iranon" (Galleon 1935 (집필 1921))

저자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Howard Phillips Lovecraft, 1890–1937)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73182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4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포도 덩굴로 머리를 장식한 한 청년이 화강암의 도시 텔로스로 걸어 들어왔다. 몰약 향을 머금은 그의 금발은 번뜩였고, 보랏빛 예복은 고대의 돌다리 너머에 자리한 시드락 산의 가시덤불에 걸려 여기저기 찢겨 있었다. 텔로스의 사람들은 피부가 검고 인상이 엄격했다. 그들은 각진 집들에 거주하며, 낯선 이가 나타나자 미간을 찌푸린 채 어디서 왔는지, 이름과 재산은 무엇인지 물었다. 청년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는 이라논이다. 아이라에서 왔으나, 그곳은 이제 희미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을 뿐 다시 찾아 헤매고 있는 먼 도시이다. 나는 그 먼 도시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는 자이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엮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나의 재산은 사소한 기억과 꿈들이며, 달빛이 부드럽게 내리고 서풍이 연꽃 봉오리를 흔드는 정원에서 노래하는 희망이 곧 나의 전부이다."

텔로스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서로 수군거렸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이 도시에는 웃음소리도 노래도 없었지만, 엄격한 성정의 사내들도 봄이 되면 가끔 카르티아 언덕을 바라보며 여행자들이 말하던 머나먼 우나이의 류트 소리를 떠올리곤 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던 그들은 이방인에게 머물다 가라고 권했다. 그리고 믈린 탑 앞 광장에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청했다. 비록 그들은 이방인이 입은 해진 옷의 색깔도,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몰약 향기도, 머리에 쓴 포도 잎 관도, 그리고 그 황금빛 목소리에 담긴 젊음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말이다.

저녁이 되자 이라논은 노래를 불렀다. 그가 노래하는 동안 한 노인은 기도를 올렸고, 눈먼 이는 가수의 머리 위로 후광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텔로스의 대다수 남자는 하품을 내뱉었고, 어떤 이는 웃음을 터뜨렸으며, 어떤 이는 잠을 자러 떠나버렸다. 이라논이 부른 노래에는 실질적인 정보라곤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오직 자신의 기억과 꿈, 그리고 희망만을 노래했을 뿐이었다.

황혼과 달빛, 그리고 나지막이 흐르던 노래가 기억난다. 나를 흔들어 잠재워 주던 창가도 떠오른다. 창밖으로는 황금빛 불빛이 흘러드는 거리가 보였고, 대리석 저택 위로는 그림자들이 춤을 추었다. 바닥에 내려앉았던 달빛의 사각형도 기억난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빛과도 달랐다. 어머니가 노래를 불러주실 때면 달빛 속에서 환영들이 춤을 추곤 했다. 또한 여름날, 형형색색의 언덕 위로 눈부시게 떠오르던 아침 해와 남풍에 실려 온 꽃들의 달콤한 향기도 기억한다. 그 바람은 나무들조차 노래하게 만들었다.

"오, 대리석과 녹주석으로 빛나는 도시 아이라여, 그대의 아름다움은 어찌 이리도 끝이 없는가! 투명한 니트라 강 너머로 펼쳐진 따스하고 향긋한 숲이 얼마나 그리운지. 푸른 계곡을 따라 흐르던 작은 크라 강의 폭포는 또 얼마나 사랑스러웠던가! 그 숲과 계곡에서는 아이들이 서로에게 꽃화관을 엮어주곤 했다. 해 질 녘이면 나는 산 위 야스 나무 아래에서 기묘한 꿈을 꾸곤 했다. 발아래로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이 흩어지고, 굽이치는 니트라 강이 별빛의 띠를 비추며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이다."

도시에는 결이 살아있는 유색 대리석으로 지은 궁전들이 즐비했다. 궁전들은 황금빛 돔을 머리에 이고 있었으며, 벽면은 화려한 그림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 곁으로는 푸른 연못과 수정 분수가 흐르는 초록빛 정원이 펼쳐졌다. 나는 정원에서 뛰놀거나 연못에 발을 담그며 시간을 보냈고, 나무 아래 핀 창백한 꽃들 사이에 누워 꿈을 꾸곤 했다. 해 질 녘이면 때때로 언덕진 긴 길을 따라 성채와 광장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내려다본 아이라는 대리석과 녹주석으로 이루어진 마법의 도시였다. 황금빛 불꽃의 옷을 입은 듯, 도시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이라, 그대를 그리워한 지 참으로 오래되었소. 우리가 유배를 떠날 때 나는 아직 어렸으나, 내 아버지는 그대의 왕이었으니 나는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가리다. 운명이 그렇게 정해두었기 때문이지요. 일곱 땅을 헤매며 그대를 찾아 헤맸소. 언젠가 나는 그대의 숲과 정원, 거리와 궁전을 다스리게 될 것이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알면서도 비웃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노래를 들려주리다. 나는 아이라의 왕자였던 이라논이니까 말이오."

* * * * *

그날 밤, 텔로스의 사람들은 이방인을 마구간에 머물게 했다. 다음 날 아침, 한 아르콘이 그를 찾아와 구두 수선공 아토크의 가게로 가서 그 밑에서 견습생으로 일하라고 일러주었다.

"하지만 나는 노래를 부르는 이라논입니다." 그가 말했다. "구두 수선공 일에는 도무지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텔로스에 있는 모든 이는 고된 노동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이 법이기 때문이다." 아르콘이 대답했다. 그러자 이라논이 말했다.

"그대들은 무엇을 위해 이토록 고되게 일하는가? 그저 살아가며 행복해지기 위함이 아니던가? 만약 더 많이 일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라면, 행복은 도대체 언제 그대들을 찾아오겠는가? 그대들은 살기 위해 일하지만, 삶이란 본래 아름다움과 노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던가? 만약 그대들 곁에 노래하는 이 하나 없다면, 그 고된 노동의 결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노래 없는 노동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 지루한 여정과도 같다. 차라리 죽음이 더 달콤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아르콘은 시큰둥한 태도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낯선 이를 꾸짖었다.

"너는 참으로 기이한 청년이로구나. 네 얼굴도, 목소리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네가 내뱉는 말들은 신성모독이다. 텔로스의 신들께서는 노동이야말로 선한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신들께서는 죽음 너머에 생명의 안식처를 약속하셨다. 그곳은 끝없는 휴식이 있는 곳이며, 수정처럼 차가운 정적만이 감도는 곳이다. 그 차가움 속에서는 누구도 생각으로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누구도 아름다움으로 눈을 어지럽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당장 구두 수선공 아토크에게로 가든지, 아니면 해가 지기 전까지 이 도시를 떠나거라. 이곳의 모든 이는 봉사해야 하며, 노래 따위는 어리석은 짓일 뿐이다."

[삽화: "카르티아 언덕 너머에는 루트 연주와 춤의 도시, 우나이가 있다."]

이라논은 마구간을 나와 좁은 돌길을 따라 걸었다. 화강암으로 지은 음침한 광장 집들 사이를 지나며, 그는 초록빛 무언가를 찾아 헤맸다. 온 세상이 돌뿐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늘 미간이 찌푸려져 있었다. 하지만 느릿하게 흐르는 주로 강가의 돌둑에는 한 소년이 앉아 있었다. 슬픈 눈을 한 소년은 강물을 응시하며, 산에서 불어난 물에 떠내려온 초록빛 새순을 찾고 있었다.

소년이 그에게 말을 건넸다. "당신이 바로 통치자들이 말하던 그 사람인가요? 아름다운 땅에 있는 먼 도시를 찾아 헤매는 이 말이에요. 제 이름은 롬노드입니다. 텔로스의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이 화강암 도시의 방식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저는 매일같이 따스한 숲과 아름다움과 노래가 가득한 먼 땅을 갈망합니다. 카르티안 언덕 너머에는 루트와 춤의 도시, 우나이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곳을 속삭이며 아름다우면서도 두려운 곳이라 말하죠. 저도 길을 찾을 만큼 나이가 들었다면 그곳으로 떠났을 거예요. 당신도 그곳으로 간다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고, 사람들도 당신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겠지요. 우리 함께 텔로스를 떠나 봄이 머무는 언덕으로 갑시다. 당신이 여행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 저는 별들이 하나둘씩 꿈꾸는 이들의 마음속에 꿈을 가져다주는 저녁마다 당신의 노래를 경청하겠습니다. 어쩌면 루트와 춤의 도시 우나이가 당신이 찾는 아름다운 아이라일지도 몰라요. 당신이 아주 오래전부터 아이라를 알지 못했다고 들었거든요. 이름이란 종종 바뀌기도 하니까요. 금빛 머리칼을 가진 이라논이여, 우나이로 갑시다. 그곳 사람들은 우리의 갈망을 이해하고 우리를 형제처럼 맞아줄 것이며, 우리가 하는 말에 비웃거나 인상을 찌푸리지 않을 거예요."

이라논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러하거라, 꼬마야. 만약 이 돌덩이뿐인 곳에서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산맥을 넘어 그 너머까지 찾아가야만 한다. 나는 네가 이 정체된 주로 강가에서 애태우며 지내게 두고 싶지 않구나. 하지만 즐거움과 깨달음이 고작 카르티아 언덕 너머에 있거나, 하루나 일 년, 혹은 오 년의 여정만으로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보아라, 나도 너처럼 어렸을 적에는 차가운 샤리 강가에 있는 나르토스 계곡에서 살았단다. 그곳에선 아무도 내 꿈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지. 그래서 나는 어른이 되면 남쪽 경사면에 있는 시나라로 가서, 시장통의 웃음 짓는 낙타 상인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겠노라 다짐했단다.

하지만 막상 시나라에 가보니 낙타 상인들은 모두 술에 취해 저속한 말이나 내뱉고 있었고, 그들의 노래는 내 노래와는 전혀 달랐다. 그래서 나는 바지선을 타고 샤리 강을 따라 내려가 오닉스 벽으로 둘러싸인 자렌까지 여행했지. 하지만 자렌의 병사들은 나를 비웃으며 쫓아냈고, 결국 나는 다른 도시들을 떠돌아야만 했단다."

"나는 거대한 폭포 아래에 있는 스테텔로스를 보았고, 한때 사르나스가 서 있었던 그 늪지를 응시하기도 했다. 구불구불 흐르는 아이 강을 따라 흐르는 트라, 일라르넥, 카다테론에도 가보았으며, 로마르 땅의 올라토에에서 오랫동안 머물기도 했다.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가 가끔 있긴 했어도 늘 그 수는 적었다. 내게 환대를 베풀 곳은 오직 아이라뿐임을 나는 안다. 그곳은 나의 아버지가 왕으로서 다스렸

던 대리석과 녹주석의 도시이다. 그러니 우리는 아이라를 찾아 나설 것이다. 비록 카르티안 언덕 너머, 악기 소리가 축복처럼 울려 퍼지는 먼 우나이를 방문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어쩌면 그곳이 아이라일지도 모르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라의 아름다움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 누구든 그곳을 말할 때면 황홀경에 빠지곤 하지만, 우나이에 대해서는 낙타 몰이꾼들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일 뿐이다."

*****

해 질 녘, 이라논과 어린 롬노드는 텔로스를 떠났다. 그들은 푸른 언덕과 서늘한 숲 사이를 오랫동안 헤맸다. 길은 험하고 어두웠으며, 현악과 춤의 도시 우나이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다. 하지만 어스름이 깔리고 별들이 떠오를 때면, 이라논은 아이라의 아름다움을 노래했고 롬노드는 그 노래를 들었다. 덕분에 두 사람은 나름의 행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었다. 그들은 과일과 붉은 열매를 배불리 먹으며 시간의 흐름조차 잊었으나, 분명 수많은 세월이 흘러갔을 것이다.

이제 어린 롬노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목소리도 날카로운 대신 낮고 깊어졌다. 반면 이라논은 늘 그대로였다. 그는 숲에서 찾아낸 덩굴과 향기로운 수지로 금빛 머리카락을 장식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롬노드가 이라논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기까지 했다. 이라논이 텔로스의 정체된 돌둑 옆, 주라 강가에서 초록빛 새순이 돋아나기를 기다리던 작은 롬노드를 처음 발견했을 때와 비교하면 말이다.

보름달이 뜬 어느 밤, 여행자들은 산등성이에 올라 우나이의 무수한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농부들은 목적지가 멀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이라논은 이곳이 자신의 고향 아이라가 아님을 직감했다. 우나이의 불빛은 아이라의 그것과는 달랐다. 우나이의 불빛은 거칠고 눈부시게 번뜩였으나, 아이라의 불빛은 옛날 이라논의 어머니가 노래로 그를 재워주던 창가 바닥에 비치던 달빛처럼 부드럽고 마법같이 빛났다. 하지만 우나이는 루트 연주와 춤이 끊이지 않는 도시였다. 이라논과 롬노드는 노래와 꿈을 통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을 찾고자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갔다. 마을에 들어서자 장미 꽃다발을 두른 축제객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거나 창문과 발코니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라논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고, 노래가 끝나면 꽃을 던지며 박수를 보냈다. 비록 이 마을이 아이라의 백 분의 일만큼도 아름답지는 않았으나, 그 순간만큼은 이라논도 자신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이들을 드디어 만났다고 믿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이라논은 망연자실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나이의 돔들은 태양 아래 황금빛으로 빛나지 않았고, 그저 회색빛의 음울한 모습일 뿐이었다. 우나이의 사람들은 지나친 유흥 탓에 안색이 창백했고, 술에 취해 눈빛은 흐릿했다. 그들은 아이라의 빛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에게 꽃을 던지며 노래를 찬양했기에 이라논은 그곳에 머물렀다. 그의 곁에는 마을의 흥겨운 잔치를 좋아하여 검은 머리카락에 장미와 도금양을 꽂고 다니는 롬노드도 함께였다.

밤이면 이라논은 축제를 즐기는 이들을 위해 자주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그는 늘 예전과 다름없었다. 산에서 가져온 덩굴로 머리를 장식했을 뿐,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아이라의 대리석 거리와 투명한 니트라 강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는 군주의 프레스코 벽화가 그려진 홀 안, 거울처럼 매끄러운 바닥 위로 높게 솟은 수정 단상에 올라 노래를 불렀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면 청중의 눈앞에 환영이 펼쳐졌다. 그러면 바닥은 장미를 던지며 그를 괴롭히던 술 취한 연회객들을 비추는 대신, 오래되고 아름다우며 희미하게 기억되는 옛 풍경들을 비추는 듯했다.

왕은 그에게 해진 보라색 옷을 벗게 하고, 비단과 금실로 짠 옷을 입혔다. 또한 초록빛 옥반지와 색이 입혀진 상아 팔찌를 채워주었다. 그리고 금박을 입히고 태피스트리로 장식한 방에 그를 머물게 했다. 그 방에는 향긋한 나무를 깎아 만든 침대가 놓여 있었고, 꽃 자수가 놓인 실크 캐노피와 덮개가 씌워져 있었다. 그렇게 이라논은 류트 소리와 춤이 끊이지 않는 도시, 우나이에 머물렀다.

이라논이 우나이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리라니아 사막에서 온 광란의 춤꾼들과 동쪽 드리넨에서 온 거무스름한 피리 연주자들을 궁전으로 불러들였다. 그 뒤로 연회객들은 이라논이 아니라 춤꾼들과 피리 연주자들에게 장미꽃을 던지기 시작했다. 화강암의 도시 텔로스에서 어린아이였던 롬노드는 날이 갈수록 술에 취해 거칠고 붉게 변해갔다. 그는 꿈꾸는 일도 줄어들었고, 이라논의 노래를 듣는 즐거움도 점차 잃어갔다. 이라논은 슬펐으나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저녁마다 대리석과 녹주석으로 이루어진 도시, 아이라에 관한 꿈을 다시 들려주었다.

그러던 어느 밤, 술기운에 살이 오른 롬노드는 양귀비꽃이 수놓아진 비단 침상 위에서 거칠게 코를 골다 몸을 뒤틀며 죽음을 맞이했다. 그 시각, 창백하고 가냘픈 이라논은 멀찍이 떨어진 구석에서 홀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라논은 롬노드의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가 생전에 좋아했던 푸른 새순이 돋는 가지들을 무덤 위에 뿌려주었다. 그러고는 화려한 비단과 장신구들을 모두 내려놓았다. 이라논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입었던 해진 보랏빛 옷 한 벌만을 걸친 채, 산에서 꺾어온 싱싱한 덩굴을 머리에 두르고는 악기와 춤의 도시 우나이를 떠났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 채로.

이라논은 자신의 고향을 찾아, 그리고 자신의 노래와 꿈을 이해하고 아껴줄 이들을 찾아 저무는 노을 속으로 계속해서 헤매고 다녔다. 시다트리아의 모든 도시와 브나직 사막 너머의 땅에서도, 얼굴에 웃음을 띤 아이들은 그의 오래된 노래와 해진 보랏빛 옷을 보며 비웃었다. 그러나 이라논은 언제나 젊음을 간직한 채, 아이라를 노래하며 자신의 금빛 머리 위에 화관을 쓰고 있었다.

*****

어느 날 밤, 그는 굽은 등에 때가 꼬죄죄한 한 노년의 양치기를 찾아갔다. 그 노인은 늪지대 위 돌이 많은 비탈에서 양 떼를 치는 사람이었다. 이라논은 다른 이들에게 그랬듯, 그에게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대리석과 녹주석으로 지어진 도시, 아이라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해줄 수 있겠소? 투명한 니트라 강이 흐르고, 작은 크라 폭포

가 야스 나무로 뒤덮인 푸른 계곡과 언덕을 향해 노래하는 그곳을 말이오."

그 말을 들은 목동은 이라논을 아주 오랫동안 기이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마치 아주 먼 과거의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했다. 목동은 낯선 이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와 금빛 머리카락, 그리고 머리에 쓴 포도 잎 왕관을 찬찬히 살폈다. 그러나 그는 노인이었기에, 그저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다.

"낯선 이여, 당신이 말한 아이라라는 이름과 다른 이름들을 나도 분명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은 아득히 먼 세월의 황무지 너머로부터 들려오는 듯하군요. 내가 젊었을 적, 기묘한 꿈에 사로잡혀 살던 한 거지 소년에게서 그 이름들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달과 꽃, 그리고 서풍에 관한 긴 이야기들을 지어내곤 했지요. 우리는 그 아이를 비웃곤 했습니다. 스스로를 왕의 아들이라 믿었지만, 우리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아이였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는 당신처럼 잘생긴 외모를 가졌으나, 어리석음과 기이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어릴 적, 자신의 노래와 꿈을 기쁘게 들어줄 이들을 찾아 떠나버렸지요.

그 아이가 존재하지도 않는 땅과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내게 얼마나 자주 노래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아이라는 이름을 자주 언급하곤 했습니다. 아이라와 니트라 강, 그리고 작은 크라 폭포에 대해서 말이지요. 우리는 그 아이가 이곳에서 태어난 것을 알았지만, 아이는 자신이 한때 왕자였다고 늘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나버린

나의 옛 놀이친구, 이라논의 꿈속에서나 존재했을 뿐입니다. 아이라의 대리석 도시도, 기묘한 노래를 즐기던 사람들도 오직 그 아이의 꿈속에만 있었을 뿐입니다."

황혼이 내리고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낼 무렵이었다. 달빛은 마치 저녁 무렵 잠결에 흔들리는 아이의 눈에 비친, 방바닥에서 일렁이는 빛처럼 늪지 위로 부드럽게 쏟아졌다. 그 빛 속에서, 해진 보랏빛 옷을 입은 한 노인이 죽음의 늪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시든 덩굴 잎으로 머리를 장식한 노인은, 마치 꿈이 통하는 아름다운 도시의 황금빛 돔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며 나아갔다.

그날 밤, 태고의 세계에서 젊음과 아름다움의 무언가가 죽음을 맞이했다.